현대차그룹, '모베드 동맹' 출격… 로봇 생태계 확장 본격화

로보월드서 국내 로봇기업 3곳 협력
순찰·배송·분리수거 로봇 4종 공개
양팔 로봇 결합해 작업 영역 확대
험로 주행·20㎝ 단차 극복 기술 선봬
플랫폼 공유로 로봇 사업화 가속도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로보월드' 가온로보틱스 전시관에서 선보인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모습.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로봇기업과 손잡고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를 활용한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순찰과 배송, 분리수거 등 일상생활 서비스부터 양팔을 활용한 물체 조작, 험로 주행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로봇 플랫폼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로보월드'에서 가온로보틱스, 위고로보틱스, 로아스 등 국내 로봇기업 3곳과 공동 개발한 모베드 기반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협력은 로봇 개발에 필요한 주행 플랫폼을 공유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베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로봇이 공개됐다. 가온로보틱스는 모베드에 순찰·배송·분리수거·세미휴머노이드 모듈을 결합한 로봇 4종을 전시했다. 위고로보틱스는 모베드에 양팔 로봇을 결합한 듀얼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선보였다.

이동하면서 양팔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기술로, 단순 이동을 넘어 작업 수행까지 가능한 모바일 로봇의 확장성을 담아냈다. ROS 기반 통합 제어와 인공지능(AI) 학습·추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로아스는 순찰 서비스 로봇과 함께 모베드의 특수 지형 대응 능력을 공개했다. 좁은 공간에서 360도 회전하고 차체의 좌우·상하 움직임을 활용해 자세를 제어하는 한편, 20㎝ 높이의 단차를 오르내리는 주행 성능을 선보였다.

모베드는 편심 휠 기반의 DnL(Drive-and-Lift) 모듈과 4개의 바퀴에 각각 적용된 인휠 모터를 통해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와 자세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차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베드 얼라이언스'도 구축했다. 플랫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사의 로봇·서비스 전문성을 결합해 현장 적용과 고객 맞춤형 모듈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로봇 플랫폼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각 기업의 전문성과 결합하면 더 다양한 산업과 생활 환경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모베드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술·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로보틱스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CES에서 처음으로 모베드를 공개했으며 약 3년 만에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 현장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로봇 청소기를 둘러보면서 삼성전자 측에 "모베드와 결합하면 뒤집어지지도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며 협업을 제안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
소방산업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생금융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금융 업무협약'도 맺었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소방산업기술원과는 소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기술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존 '안전인프라보증' 지원대상에 소방안전기술 우수기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수소트럭에 충전로봇까지"… 미래 수소산업 한눈에

수소엑스포에 12개국 197개사 참가
현대차, 상용차 관제·예방 정비 강화
코오롱, 연료전지 핵심 소재 기술 공개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과 안호영 연구책임의원, 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WHE 2026'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승혁 기자

"상용차는 사실 멈추면 안 되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케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6'. 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수소 상용차의 관제 시스템을 설명하며 운행 중단 시간을 줄이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부스의 관제 화면에는 운행 현황과 이상 진단, 정비 예측, 실시간 알림 항목이 나뉘어 있었다.

제5회 수소의 날과 통합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12개국 197개사가 참여했다. 오는 6일까지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기술을 선보인다.

수소전기트럭 옆에서는 자동 충전로봇 'ACR-H' 시연이 진행됐다. 차량 충전구 앞에서 로봇이 커넥터를 연결하는 과정이 펼쳐졌다. 비전 인공지능(AI)으로 차량과 충전구 위치를 인식한 뒤 보호캡을 열고 커넥터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운전자의 조작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상용 모빌리티 구역에는 셀과 주요 부품을 개선해 내구성을 높인 연료전지 시스템이 처음 공개됐다. 서 사장은 "수소 상용차는 주행거리와 수소 저장 공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더라도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 관계자가 가리킨 '블루링크 업타임 케어' 화면에는 차량 운행·진단 정보가 표시됐다. 운행데이터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 정비로 연결해 비가동 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품질과 성능 개선에도 활용된다.

부스 중앙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저장·공급 설비, 차량과 철도를 연결한 수소 생태계 모형이 자리했다. 앞쪽의 생산설비를 지나 뒤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태양광 발전 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이 이어졌다. 새만금 AI 밸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과 수소를 도시·산업시설에 공급하는 구상을 담았다.

서 사장은 "수소뿐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 확산을 위해서도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에 가장 먼저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스에는 디 올 뉴 넥쏘용 막가습기와 범용 제품 '에코메이트 H50N·H200N'이 나란히 놓였다. 격자무늬 표면 위로 여러 연결구가 솟아 있었다.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장치로, 범용 제품은 비상발전·선박·열차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앞쪽에는 수전해용·연료전지용 막전극 접합체(MEA)와 고분자전해질막을 전시했다. 투명 덮개 아래 얇은 막이 펼쳐졌고, 옆에는 검은색과 주황색 층을 벌려 놓은 스택 적층 모형이 내부 구조를 드러냈다. 현장 담당자에 따르면 전시 제품은 모두 양산·공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차량·운영 기술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소재·부품은 수소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공급망의 각 단계를 보여줬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이바나 제멜코바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도 한국 공급망의 강점을 짚었다. /이승혁 기자 sh95@

CJ대한통운
게임 속 등장한 택배차량
'테일즈런너' 협업 눈길

CJ대한통운이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와 함께 통합 브랜드 '오네'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5종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Z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CJ대한통운의 배송차량과 배송상자 등을 게임 속 아이템으로 구현해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새로 선보이는 콜라보 아이템은 CJ대한통운 조끼·배송차량·배송상자 등 물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게임 속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다양한 미션으로 구성된 5개의 퀘스트를 완료하고 콜라보 아이템 5종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 콜라보 아이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지역서 키운 브랜드, 세계로 뻗는다… 제주서 첫 '로컬창업 페스타'

중기부, 로컬기업 투자·수출 지원
전국 로컬기업 140곳 한자리에
국내외 투자사·해외 바이어 참여

로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출 등의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처음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주 쉐라톤호텔에서 '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 개막식을 열고 오는 6일까지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흘간의 일정 동안 전국 각지 로컬기업 약 140개를 비롯해 국내 투자사 8개사, 해외 투자사 3개사, 대형 브랜드·유통사 5개사, 해외 바이어 13개사, 해외 진출 지원기관 1개 기관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서 이들은 투자·판로·수출 기회를 함께 모색한다. 창업 초기 기업엔 선배 기업·전문가와 교류할 기회를, 성장 기업엔 투자 연계 기회를,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대형 유통사·해외 바이어와 협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에서 세계로, 지역의 가치를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선 그동안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매출·수출 등 성장한 로컬기업의 성과도 공유한다. 지난 2023년 이후 립스(LIPS)를 통해 로컬 창업 소상공인 765개사가 총 122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행사 첫날인 4일엔 로컬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로컬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의 성장 방향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투자사와 로컬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열렸다. '로컬 투자 로드쇼'에선 와이앤아처의 리버스피칭과 로컬기업 6개사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립스(LIPS)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투표로 선정된 '로컬스타 TOP3'를 공개해 전국 우수 로컬기업의 성장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5일에는 기업의 성장이 개별 사업체를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국내외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앤컴퍼니그룹
배터리·타이어 3사 협력
美 자동차 부품시장 공략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배터리·열관리·타이어 3사의 기술과 고객망을 결집해 약 6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 공략을 강화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3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AAPEX 2026'에 한국앤컴퍼니·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가 공동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부스 전면에는 배터리와 열관리 시스템, 타이어를 함께 배치한 차량 모형을 전시해 각 제품의 역할과 기술적 연계성을 보여준다. 계열사 고객망을 활용한 상담과 사업 미팅도 진행한다.

/이승혁 기자